

노수주

노수주



대학가자

인문
|
논술
|
|

인문논술 집필진

초암 PlanA 논술팀

이아람
박세진
이순영
김자연
이계룡
김가남
박정혜

인문수리 집필진

김홍빈
강원호
장형수

STAFF

| | |
|--------|---------------------|
| 발행인 | 김형중 |
| 편집인 | 홍태운 |
| 기획 실장 | 김미경 |
| 기획·편집 | 이유진 우정아 감영주 심현진 염혜민 |
| 사업 실장 | 이대연 |
| 영업 | 최기문 이진홍 이윤혜 김지혜 |
| 마케팅 실장 | 강경조 |
| 마케팅 | 김은경 김라니 임고은 김동규 |
| 디자인 | 김정민 조희정 닷츠 디자인뷰 |
| 제작 | 박종택 신성철 김경수 |

논술로 대학 가자. 인문논술 201507 초판 1쇄 제작코드 S05T02S0P5B

펴낸곳 이투스교육(주)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34(삼성동 113-8)

Tel. 1599-3225 등록번호 제2007-000035호

ISBN 979-11-6831-209-1 [5370]



초암 PlanA 논술팀

“초암 PlanA 논술팀”은 2001년 〈콧콧 수시전형 길잡이〉 시리즈로 시작하여 2002년부터 〈단단하게 당당하게〉 시리즈, 〈대학별고사 논술구술 시사〉 시리즈 등 다수의 시리즈 교재물과 〈논술 기초〉, 〈논술, 은유와 상징의 날개를 달다 : 논술백과사전〉, 〈초암논술실전 : 기본편〉 등 다수의 교재를 집필해 왔습니다. 또한 한경 논술모의고사, 초암-한겨레 논술모의고사, 호암-유레카 논술모의고사, 초암-청솔 논술모의고사 등 수많은 논술모의고사를 개최해 왔습니다.

저자 프로필



이아평

현 대치 새움학원 대치 비전학원 출강
전 대치 초암논술 대표강사
전 메가스터디(문리인)재동
전 이투스문리인
전 강남대성학원(재동)



박세진

현 목동 초암 PlanA 논술학원 대표강사
전 목동 초암논술 대표강사
전 이투스문리인
전 초암-청솔 논술모의고사 책임출제위원



이계룡

현 대치 새움학원 인문논술팀장
전 대치 초암논술 고 1, 2 대표강사
전 이투스문리인
전 초암-유레카 논술모의고사 책임출제위원



이순연

현 중계 초암 PlanA 논술학원 대표강사
전 목동 초암논술 대표강사
전 메가스터디 이투스문리인
전 한경 성공생글 논술경시대회 책임출제위원



김가남

현 중계 초암 PlanA 논술학원 전임강사
전 중계 초암논술 고 1, 2 대표강사
전 초암-청솔 논술모의고사 책임출제위원



김자진

현 초암 PlanA 논술팀장
중계 초암 PlanA 논술학원 전임강사
전 대치 초암 인문논술팀장, 중계 초암 이투스문리인
전 초암-유레카 논술모의고사 책임출제위원



박정혜

현 목동 초암 PlanA 논술 중등동부 전임강사
전 대치 초암 입산 초암 중등부 부원장
전 한경 성공생글 논술경시대회 책임출제위원
독서토론 교재 〈생각의 날개를 달자〉 저자

Structure

구성과 활용법

학생들의 실제 논술 답안(합격 답안 vs. 불합격 답안)을 통해 실전 논술 작성법을 배운다!

논술로 대학 가자 인문논술은 각 대학별 기술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실제 답안을 대학의 평가 기준을 반영하여 점수와 함께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 논술 채점 시 '합격 요소'가 무엇이고, '불합격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학별 기술문제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최근 2개년 인문논술 기술문제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인문 수리논술도 함께 수록하여 한 권으로 논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3단계 기술문제 해설

모든 기술문제에 1. [문제 해결의 원칙] 2. [답안 작성 방향] 3. [답안에서 자주 나타나는 오류] 3단계의 자세한 기술문제 해설을 제공하여 실전 답안 작성에 대한 능력을 키우고, 자주 범하는 오류들은 미리 파악하여 피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교재 활용법

1. 기출문제에 대해 직접 답안을 작성해 본다.
2. 기출문제 해설을 읽고 문제 해결 방향을 이해한다.
3. 불합격 답안에서는 실수하기 쉬운 불합격 요소들을 파악해 자신의 답안과 비교해 본다.
4. 합격 답안의 합격 요소를 분석, 체크하여 실제 답안 작성 시 적용한다.
5.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자신의 합격 답안을 작성해 본다.

합격 답안

타당한 부분을 약간 미흡했던 부분들을 분석하고, 합격의 포인트가 무엇인지 파악하여 실제 답안 작성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불합격 답안

실제 선배들의 논술 답안에서 감점된 불합격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실수와 감점을 줄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최신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출제 경향에 맞춘 실전 모의고사와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책

머리에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 논술을 정말 어려워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 어려움은 단지 배워 본 적이 없기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다른 과목과 다르게 논술만이 갖는 고유의 어려움 때문이다. 그것은 정답이 명확치 않다는 점이다. 책이나 강의를 통해 논술의 기본 원리를 배운 후에, 자기 나름으로는 그 원리를 적용해서 글을 썼다 하더라도 자기 예상과 다른 평가를 받기 일쑤이다. 학생 입장에서선 대체 어떤 답을 써야 좋은 평가를 받고, 나아가 대입 논술 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는지 답답함과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 책은 수험생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과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기획되었다.

집필에는 다년간 대한민국 수험생들을 직접 만나며 논술을 가르친 현직 논술 선생님들이 참여하였다. 이 선생님들은 우리나라에서 논술 시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0년대 중순부터 '초암논술아카데미'라는 울타리 안에 모여 학교와 학원, 온라인,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수많은 입시 현장에서 합격생을 길러 낸 경력의 소유자들이다. 논술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실력을 높이고 합격하는 답안 작성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 자부한다. 지금은 'PlanA' 논술팀으로 이름을 바꾸어, 변화하는 입시 환경에서도 수험생들이 희망을 품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더 나은 논술 교육과 학습의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가고 있다. 이 교재는 그런 모색과 혁신의 일환이다.

이 교재에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의 최신 2년간 기출 문제 총 8개와 그에 대한 해설 그리고 수험생들이 작성한 합격, 불합격 답안이 실려 있다. 교재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핵심 부분은 학생들이 작성한 답안과 그에 대한 평가이다.

불합격 답안이 실린 데에 의아함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러나 불합격 답안은 학생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실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의 독자들이 8개 문제에 대한 불합격 답안을 찬찬히 분석하고 나면 답안 작성 시 범하기 쉬운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불합격 답안에 대한 강령을 참고하여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이고도 정확히 분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순히 '불합격 답안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정도의 추상적 느낌만으로는 학습 효과를 얻기 어렵다.

합격 답안에서는 문제에 대한 해설을 통해 확인한 답안 작성의 원리와 방향이 어떻게 실제 답안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 불합격 답안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를 눈여겨본다면 학습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선생님들이 작성한 예시 답안을 신중히 읽고 학생들이 작성한 합격 답안을 실은 이유는 한마디로 '현실감'을 높이기 위해서이다. 오랜 논술 경력의 선생님이 긴 시간 고민 끝에 내놓는 공들인 예시 답안은 학생들에게 너무 먼 '모범 답안'으로만 느껴질 뿐이다. 수험생들은 선생님이 아니라 같은 수험생과 경쟁하며, 시간의 압박 속에서 답안을 작성한다. 이런 제약이 반영된 답안이 실제 논술 시험을 치러야 하는 학생들에게 더 의미 있을 것이다. 대신 각 문제에 대한 꼼꼼한 해설이 첨부되어 있으므로 답안의 바람직한 방향이나 여러 방향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문제 해설'을 읽고 이해하기를 바란다. 참고로 이 책에 실린 '불합격 답안'과 '합격 답안'은 실제 시험에서 불합격한 학생들과 합격한 학생들의 답안을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답안들에는 후일의 합격생이 연습 과정에

서 제출한 글도 섞여 있다.

이 교재에 실린 내용을 꼼꼼히 읽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겠지만,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기출 논제를 제한된 시간 안에 스스로 풀어 보아야 한다. 문제 풀이 과정 중에 맞닥뜨리게 되는 고민과 선택을 몸소 체험해 봐야지만, 불합격 답안에서 학생들이 하는 실수가 왜 자주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 반대로 합격 답안에서 보이는 장점이 왜 장점이지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그 이해는 논술 실력 향상에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이 교재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몇 가지만 덧붙일까 한다. 학생들의 답안에 대한 평가는 집필자들의 자의적 판단이 아니라 각 대학이 반복해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 기준을 토대로 했다.

두 문항으로 출제되는 연세대학교 논제에서는 1번 문항에서 주로 각 제시문에 대한 이해 분석, 둘 이상의 제시문에 대한 비교 종합 능력을 점검하며, 2번 문항에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적절한 논거를 활용하여 설득하는 논증력, 글의 각 부분을 유기적으로 배열하는 구성 능력을 평가한다. 연세대 문제 유형은 다양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개념을 현상에 적용하는 능력, 그리고 도표, 그래프 등의 자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자료 분석 능력을 평가 기준에 포함하기도 하였다. 물론 문법에 맞는 문장을 구사하여 매끄럽게 표현하고 있는지도 채점의 대상이 된다.

언어논술 문제로 한 문항이 출제되는 고려대학교 논제에서는 학교 측이 밝히고 있는 평가 요소인 독해력, 비교 분석 능력, 글의 전개와 구성 능력, 주장의 타당성, 독창성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하였다. 개별 제시문에 대한 이해 수준은 독해력 항목에서, 또 둘 이상 제시문에 대한 종합적 사고력은 비교 분석 능력 항목에서 평가된다. 글의 전개와 구성 능력은 말 그대로 글의 짜임을 평가하는 것이며, 주장의 타당성은 주장의 현실성과 논거의 설득력으로 평가하고, 논거의 다양성과 사고의 다각성은 독창성 항목에서 평가된다.

아무쪼록 이 교재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논술 준비 과정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고 합격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기원한다.





Contents

차례

Part 1

대학별 최신 기출문제와 합불답안 분석

I. 연세대학교 기출문제와 합불답안 분석

| | |
|------------------------|-----|
| • 2015 연세대학교 수시논술 인문계열 | 14 |
| • 2015 연세대학교 수시논술 사회계열 | 46 |
| • 2014 연세대학교 수시논술 인문계열 | 82 |
| • 2014 연세대학교 수시논술 사회계열 | 116 |

II. 고려대학교 기출문제와 합불답안 분석

| | |
|------------------------|-----|
| • 2015 고려대학교 수시논술 인문A형 | 150 |
| • 2015 고려대학교 수시논술 인문B형 | 174 |
| • 2014 고려대학교 수시논술 인문A형 | 198 |
| • 2014 고려대학교 수시논술 인문B형 | 226 |

Part 2

실전 모의고사

I. 연세대학교 실전 모의고사

| | |
|--------------------|-----|
| • 연세대학교 실전 모의고사 1회 | 256 |
| • 연세대학교 실전 모의고사 2회 | 274 |

II. 고려대학교 언어논술 실전 모의고사

| | |
|-------------------------|-----|
| • 고려대학교 언어논술 실전 모의고사 1회 | 296 |
| • 고려대학교 언어논술 실전 모의고사 2회 | 310 |

● 부록

[연세대학교]

| | |
|------------------------|-----|
| • 2013 연세대학교 수시논술 인문계열 | 328 |
| • 2013 연세대학교 수시논술 사회계열 | 332 |
| • 2012 연세대학교 수시논술 인문계열 | 336 |
| • 2012 연세대학교 수시논술 사회계열 | 340 |

[고려대학교]

| | |
|------------------------|-----|
| • 2013 고려대학교 수시논술 인문A형 | 344 |
| • 2013 고려대학교 수시논술 인문B형 | 348 |
| • 2012 고려대학교 수시논술 인문A형 | 352 |
| • 2012 고려대학교 수시논술 인문B형 | 356 |

특별 제공 자료

2012년, 2013년 기출문제 답안 작성 방향 및 합불 답안 분석 자료
(이투스북 www.etoosbook.com 학습자료 다운로드 코너에서 제공합니다)

1

제시문 분석

대학 측에서는 각 제시문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다만, 선택된 주제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최대한 반영해 『도덕』, 『철학』, 『생활과 윤리』, 『환경과 녹색 성장』 등에서 다루는 주제인 ‘인간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등을 ‘인간과 동물의 관계’라는 추상적 차원과 ‘동물 실험의 정당성’이라는 현실적 이슈의 차원에서 통합적인 문제로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제시문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발췌하거나, 교과서에서 다루는 주제 및 내용에 준하여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제시문 (가)

이문구의 소설 『관촌수필』 연작 중 하나인 『여요주서』의 일부이다. 옹모는 팽을 잡는 것을 비난하는 판사에게 자신이 팽을 잡는 행위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이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행위라고 형변하고 있다. 옹모는 팽은 ‘물격’을 가진 존재이므로 그보다는 ‘인격’을 가진 자신의 편이 더 먼저 고려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데, 이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서 인간 중심주의적인 사고를 잘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제시문 (나)

필자는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진화적 연속성과 유사성이 있다는 입장을 따르고 있다. 물론 각각의 종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진화적 연속성 안에서의 차이일 뿐, 그것이 근본적 차이이거나 종의 우열 관계를 입증하는 근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필자는 ‘종(種)우월주의적 사고에 입각하여 인간과 동물을 판단하는 것을 비판한다. 종(種)우월주의적 사고는 동물이나 인간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 인간을 위해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를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제시문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서 생태 중심주의를 드러낸다.

제시문 (다)

필자는 동물은 인간의 수단으로서 존재하지만, 인간은 동물에 대한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인류에 대한 간접적인 의무를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필자는 동물의 어떤 행동이 인간의 행동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원리에서 나온 것이라면 동물을 존중하고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인간에 대한 의무를 할양할 수 있기 때문이며,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에 대해 자애로운 감정을 갖는 것은 곧 인류에게로 발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제시문은 인간 중심주의적 시각을 보이면서도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인류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생명 중심주의적 사고를 보여 주고 있다.

제시문 (라)

세 개의 도표는 각각 ‘동물들의 사인 비교’, ‘실험용으로 죽은 동물들의 종류’, ‘동물 실험을 통해 개발된 치료법의 활용 정도’ 등 서로 다른 내용을 제시하고 있지만, ‘동물 실험’이라는 키워드로 묶을 수 있다. 이들 자료를 통해 동물 실험의 문제점과 장점을 살펴볼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동물 실험의 정당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2

답안 작성 방향 1

문제 1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제시문 (가), (나), (다)의 논지를 비교, 분석하십시오.

(1,000자 안팎, 50점)

1

문제 해결의
원칙

1) 핵심 주제 파악

(가), (나), (다)의 세 제시문을 ‘인간과 동물의 관계’라는 기준에 맞추어 해석해야 한다. 제시문에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보여 주는 키워드들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제시문 자체를 독해하는 것의 난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다.

2) 제시문 간 관계 분석에 따른 비교 기준 설정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매우 포괄적인 키워드이므로, 실제 이 관계를 구성하는 여러 측면의 특성들을 세부적인 비교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각 제시문은 인간과 동물이 구분되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인간과 동물의 지위나 권리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학교 측 발표에 따르면 “인간과 동물 사이의 구분과 차별, 인간의 복지와 동물의 복지, 동물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의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과 가치관을 분석하고, 그것들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성찰하는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한다.

3) 비교 기준에 따른 입장 차이 정리

자신이 설정한 여러 비교 기준에 따라 (가), (나), (다)가 서로 어떻게 같고 다른 입장이 되는지를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 가령, (가)와 (다)는 모두 인간과 동물은 차이가 있으며 동물은 인간을 위한 수단이라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지만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의 문제에서는 입장을 달리하며, (나)와 (다)는 동물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 오히려 유사한 입장을 보인다는 것을 밝혀 주어야 한다.

2

답안 작성 방향

1) 제시문 내용 정리

(가), (나), (다)의 차이가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날 수 있게 글을 구성해 주기만 하면 된다. 이때 (가), (나), (다)의 제시문이 ‘인간과 동물의 관계’라는 공통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보이므로, 이를 잘 드러낼 수 있게 해야 한다. 즉, (가), (나), (다) 세 제시문은 인간과 동물은 구분되는가, 인간과 동물은 같은 권리(복지)를 갖출 자격이 있는가, 인간은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동물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의무) 등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제시문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자.

● 제시문 (가)

용모는 핏이 해로운 새이기 때문에 핏을 보호할 필요가 없고 해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한 이유는 인간의 격, 즉 인격이 핏의 그릇, 즉 물격보다 더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핏과 같은 동물이 용모 자신과 같은 인간과 구분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고방식에서 출발한다. 인간과 동물은 다르며 물격보다는 인격이 더 높으므로, 인간의 권리가 동물의 권리보다 언제나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용모는 만약 동물의 행위가 인간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동물의 복지나 권리를 지키거나 동물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 제1문 (나)

(나)는 광범위한 종들이 진화적 연속성을 갖기 때문에, 그 연속적인 질서 속에 위치한 각각의 종들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특성이 완전히 분리되고 구분된 특성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연속선상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여부가 종들의 서열 관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필자는 인간과 동물은 연속적이고 유사한 질서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가)의 '용모'와 달리, 동물과 인간이 가진 차이와 구분 지점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본다. 그러므로 동물의 지위나 권리 또한 인간과 다를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동물이 인간을 위한 수단일 수 없기에 동물의 삶의 방식 자체를 인간의 삶의 방식과 마찬가지로 인정하고 그 복지와 권리를 지켜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가)의 '용모'와는 완전히 반대의 입장을 보인다.

○ 제1문 (다)

모든 동물 중에 인간만이 목적적 존재이며 동물은 인간의 수단이지만, 동물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지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동물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지키는 것이 인간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입장은 인간과 동물은 본질적으로 구분이 되며, 동물보다 인간이 우위에 있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점은 (가)의 '용모'의 입장과 유사하다. 그러나 (가)와 달리, 인간이 동물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저버려서는 안 되며,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지켜 주는 것은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입장을 보인다. 여기서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중시한다는 점은 (나)의 입장과 유사하다.

2) 공통된 주제와 관련한 제1문 간의 관계

제1문 간 관계는 여러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다음에 제시된 것들은 가능한 예시들이다.

a. 제1문 간 차이점 예시 1

인간과 동물의 근본적 차이 여부와 우열 관계에 대해 (가), (다)는 공통적인 입장을, (나)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가), (다)는 인간과 동물이 본질적 차이를 가지고 있고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인간 중심적 시각을 갖고 있다. 반면 (나)는 인간과 동물은 본질적 차이가 없으며, 따라서 인간과 동물 사이에 어떠한 우열 관계도 없다고 본다.

그러나 (가)와 (다)는 인간이 동물을 보호하고 복지를 지켜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입장이 나뉜다. (가)는 인간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해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지만, (다)는 사랑과 자애라는 가장 인간다운 특성과 감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동물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인다.

b. 제1문 간 차이점 예시 2

(가)는 인간과 동물은 차이가 있으며, 인간은 동물보다 우월하다고 보는 관점이다. 따라서 인간에게 필요하다면 동물은 희생될 수 있다. 이와 반대되는 입장은 (나)이다. (나)는 인간과 동물은 차이가 없으며 인간과 동물 사이에 서열 관계는 없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인간의 필요를 위해 동물을 수단화하는 것에 반대한다.

(다)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서는 (가)와 같은 입장을,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서는 (나)와 같은 입장을 취한다. 인간은 동물과 차이가 있고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지만, 그 우월함은 인간성을 함양하는 방

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동물에 대한 자애와 보호를 통해 인간성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답안 작성에서 자주 나타나는 오류

- a. 다수의 답안에서 (나)와 (다) 제시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나)의 ‘침팬지’나 (다)의 ‘개’의 사례는 각 제시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사례를 주장과 연결시키지 못하거나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는 제시문 전체의 의미를 오독하는 경우가 있었다.
- b. 세 제시문을 비교할 때, 인간과 동물의 관계, 동물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의무 등의 비교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실제 작성된 답안들 사이의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즉, 제시문 독해 및 비교 기준 설정의 난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합격 답안과 불합격 답안 사이의 편차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각 제시문의 차이를 뚜렷하게 제시하여 명확히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특히 (다)의 관점은 (가), (나) 두 제시문 모두와 공통되는 지점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여 비교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결론에서 각 제시문을 비교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인간과 동물의 관계’라는 핵심 키워드와 비교 기준을 설정하는 것에만 집중하여 실질적인 차이점을 부각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3

답안 작성 방향 2

문제 2 제시문 (라)의 도표들을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제시문 (나)와 (다) 각각의 입장에 근거하여 평가하시오. (1,000자 안팎, 50점)

1

문제 해결의 원칙

1) [도표]의 통합적 해석

제시문 (라)의 도표를 통합적으로 해석하라는 요구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표 1], [도표 2], [도표 3] 사이의 연관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해야 한다. 각 도표를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통합적’으로 해석하라는 문제의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워진다.

2) 제시문의 관점에 따른 도표 평가

제시문 (나), (다) 각각의 입장에 근거하여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해석한 도표들이 가진 서로 다른 의미를 (나)와 (다)의 다른 입장에 따라 다시 평가해야 한다. 이때 (나)와 (다)의 관점 차이가 각 도표의 해석 과정에서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

3) 창의적인 해석 제시

‘평가’는 어떠한 방향으로도 제시될 수 있다. 제시문 (나)와 (다) 각각의 입장에서 볼 때, 도표들의 상황이 갖고 있는 부정적·긍정적 측면을 다양하게 짚어내어 창의적으로 추론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 좋다.

2

답안 작성 방향

1) [도표]의 통합

[도표 1]~[도표 3]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동물 실험이다. 동물 실험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도표를 읽으면, 우선 [도표 1]은 실험용으로 죽는 동물의 수가 다른 이유로 죽는 동물의 수보다 현저히 낮음을

보여 준다. [도표 2]는 실험용 동물로 주로 설치류나 어류, 조류가 많고, 포유류나 영장류는 상대적으로 적응을 보여 준다. [도표 3]은 동물 실험의 결과로 인간이 입은 혜택을 보여 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경미한 증상에 대한 치료제부터 위중한 병증에 활용되는 치료법까지 그 혜택은 다양하다.

이 도표들은 모두 2013년도의 자료이기 때문에 동물 실험이 증가 추세인지 감소 추세인지, 혹은 2013년의 동물 실험들이 [도표 3]에 나타난 치료법 외에 무엇을 목적으로 행해졌는지, [도표 3]의 치료법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등을 알 수 없다는 한계는 있지만, 이 부분은 설득력을 갖춘 추론으로 채우도록 한다. 그리고 [도표 1]~[도표 3]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각 도표들의 사이에 어떤 관계가 형성되는지를 생각해 본다.

2) (나)의 관점에서 평가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는 동물 실험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도표 3]과 같이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행위라 하더라도, [도표 1], [도표 2]에 나타난 것처럼 그것이 동물의 죽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보다 세부적으로 평가의 근거를 [도표]의 해석을 통해 제시해 보자.

우선 [도표 1]에서는 실험용으로 죽어 가는 동물의 숫자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식용 어류나 고양이가 죽인 야생 동물은 종(種)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본능의 영역에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인 데 반해, 실험용 동물은 명백히 인간의 인위적 필요에 의해 동물을 수단화하는 것임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도표 2]를 통해 인간이 실험 동물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종(種)우월주의, 편견과 선입견이 여지 없이 작용하였다는 점을 비판할 수 있다. 실험 동물로 포유류나 영장류 등을 선택하는 경우보다, 설치류나 어류, 조류 등을 선택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세부적으로 보면 들쥐나 생쥐는 모두 '쥐'이므로 지능이나 고통을 느끼는 정도에서 유사할 것임에도, 실험용으로는 들쥐의 선택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는 어떤 동물이 지능이나 감각에서 다른 어떤 동물에 비해 현격하게 뛰어나다는 근거가 없음에도, 인간에게 가깝거나 비슷하게 생긴 동물은 실험 동물로 덜 선택하고 인간과 관계가 멀거나 덜 비슷하게 생긴 동물은 실험 동물로 더 많이 선택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도표 3]은 동물 실험을 통해 개발된 치료법이 인간의 치료에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도표 2]를 보듯, 실험용 동물은 인간의 자의적 판단으로 선택되기 때문에, 인간과 진화적으로 가장 유사한 동물들을 실험한 결과로 이 치료법이 개발되었다고 볼 근거는 없다. 또한 이 치료법들이 향후 인간에게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동물에게는 통용되었던 치료법일지라도, 동물과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완벽히 동일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동물 실험을 통해 개발된 치료법의 활용 정도가 [도표 3]에 나타난 것보다 더 큰 수치이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치료법을 찾지 않고 함부로 동물을 수단화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할 수 있다. [도표 3]은 [도표 1], [도표 2]의 동물 실험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인간을 위한 하나의 치료법을 찾기 위해 동물을 실험용으로 선택하는 행위를 용인하고, 동물 실험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목적을 위해 더 많은 동물이 죽음을 당할 가능성을 계속 열어 두게 된다. 이는 동물이 가진 삶의 권리, 생존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동물을 인간의 목적에 종속시키는 행위이므로 비판받아야 한다.

3) (다)의 관점에서 평가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는, 동물 실험을 부분적으로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도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에게 확실한 도움이 된다면, 인간의 도덕 기준을 해치지 않는 한계 안에서 어느 정도의 동물 실험을 허용하는 입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다)의 관점을 근거로 하여 동물 실험에 찬성하거나 반대할 적절한하고 설득력을 갖춘 논리를 제시한다면 그것 역시 타당할 수 있다. 다만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도표]의 해석 과정에서 (나)와의 차이가 나타나야 한다. (나)의 관점에서 실험용 동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동물의 살 자체의 가치 때문이라면, (다)의 관점에서 실험용 동물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동물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인간에 대한 도덕적 의무와 연관되기 때문임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럼 동물 실험에 부분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 [도표]의 의미를 평가해 보자.

우선 [도표 1]에서는 실험용으로 죽어 가는 동물의 숫자가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 동물 실험 허용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인간이나 동물이 생존을 위해 필요로 하는 다른 생명체의 죽음보다 실험용 동물의 죽음은 그 수가 현저히 낮다. 이는 동물 실험을 최소화하려는 인간의 윤리적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실험용 동물의 죽음은 무의미한 살생이 아니다. [도표 3]에서 보는 것처럼, 인간의 삶을 위해 동물 실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013년 한 해만으로도 동물 실험을 통해 인간이 얻은 혜택은 매우 크다. 간단한 항생제의 처방부터 암의 치료나 생명과 직결되는 인공심장 판막 이식까지, 이러한 치료법들은 인간 생명의 존엄을 지켜 주는 것이며, 이를 위해 동물 실험은 어쩔 수 없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동물의 생명이 가진 가치는 인간의 생명의 가치보다 중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동물 실험은 인간의 도덕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되고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도표 2]에 드러난 실험 동물의 선택은 중요하다. [도표 2]는 들쥐나 생쥐 및 설치류, 물고기, 새와 같이 인간과의 접점이 적거나 유사성이 적은 동물들이 실험 동물로 다수 선택되었음을 보여 준다. 명백하게 인간의 삶을 유지시켜 준다는 목적이 없다면 당연히 이러한 동물들이 죽음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동물의 희생이 필요하다면, 가능한 인간과 유사성이 적거나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성에 피해와 타격을 주지 않는 동물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개나 고양이, 영장류와 같이 그들의 장점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고통의 정도를 쉽게 가늠할 수 있는 동물들에 대한 실험은 최대한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어류나 조류, 설치류는 고통을 덜 느끼고 알려져 있으며, 인간과의 교감 가능성이나 유사성도 상대적으로 적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들을 활용하여 제한적인 실험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어야 한다.

3

답안 작성에서
자주 나타나는
오류

- 도표를 통합적으로 해석하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답안들이 많았다. 세 도표의 연관성을 고려하지 않아 (라)에 제시된 도표들의 공통적인 특성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이다. 즉, 각 도표로부터 '동물 실험'이라는 공통의 키워드를 제대로 찾지 못해 자료 사이의 연관성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였다.
-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도표의 세부 항목에 대한 해석이 누락되는 경우도 많았다. (나), (다)의 관점을 연결짓는 것에만 집중하여 실질적인 자료 해석 과정을 보여 주지 못하여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 (나)와 (다)의 관점을 토대로 자료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동물 실험'이라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나)와 (다)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술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특히 (다)의 경우 구체적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실질적인 입장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답안들이 많았다.



문제 1

1) 이해 분석력

- 각 제시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했는지를 평가한다.

2) 비교 및 종합화 능력

- 각 제시문의 내용을 공통 주제에 맞게 분석하여 서술하고, 다양한 비교 기준을 설정하여 제시문의 관점 차이를 논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3) 표현력

- 문법에 맞는 문장과 간결하고 정확한 표현을 활용하여 비교 분석을 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문제 2

1) 자료 분석 능력

- 세 도표가 가진 각각의 의미와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의미를 모두 파악하여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세부적인 비교 기준을 바탕으로 세 도표의 의미 차이를 비교·분석한 내용이 서술되었는지를 평가한다.

2) 논증력

- (나)와 (다)의 각 관점에서 [도표]의 의미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고 논리적인 근거를 설정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 근거들은 [도표]의 해석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제시문과 도표의 의미를 정확하게 연결하여 논의하고 있는지도 평가 대상이 된다.
- (나)와 (다)의 관점이 가진 추상적 측면과 동물 실험이 가진 구체적 측면이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연결되었는지 평가한다.

3) 글의 전개와 구성

- 글의 공통 주제 및 출제 의도인 '인간과 동물의 관계'와 '동물 실험'의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자료에 적용된 제시문 사이의 관점 차이를 명료하게 드러내면서, 주제를 이탈하지 않고 글이 전체적으로 완결성 있게 전개되었는지를 평가한다.

4) 표현력

- 문법에 맞는 문장과 간결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자료의 의미를 제시하고, 평가를 수행하였는지 평가한다.

Memo



문제 1

1

불합격 답안

[답안 1]

① 답안 평가

평가 기준

이해 분석력

비교 및 종합화 능력

표현력

답안 등급

B

C

B

② 답안

제시문 (가), (나), (다)의 동물과 인간의 관계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갖는다. 세 제시문은 동물과 인간 간 관계와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 관해 다른 견해를 보인다.

먼저 (가)는 인간이 동물보다 서열이 높다고 본다. 또한 ㉠ 동물 간에도 보호해야 할 것과 그 가치가 없는 것은 다르다고 보며 서열이 있음을 주장한다.

(다) 역시 인간이 동물보다 높은 서열임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가)와 공통점을 갖는다. 동물은 인간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 개와 곤충처럼 같은 동물이나 다른 종이더라도 그 서열은 같다고 보는 점에서 (가)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나)는 인간과 동물 간의 서열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그 근거로 광범위한 동물, 즉 인간과 동물 사이에 존재하는 진화적 연속성을 제시한다. 인간의 지각, 감정 역시 다른 종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동물 간 서열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모든 종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새나 침팬지 역시 자신들의 생존에 필요한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세 제시문은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다른 관점을 보인다. (가)는 ㉢ 동물이 인간에게 피해를 주므로 보호의 의무는 없다고 본다. 제시문의 용모의 농작물을 망치는 물질적 피해를 당하고도 그들을 보호하는 것은 동물을 인간보다 더 중시하는 것으로 여긴다.

그러나 (나)는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무책임한 종우월주의는 피하고 동물을 하나의 개체로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 그들 역시 고통을 느끼고 감정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반면 (다)는 동물을 대하는 태도 역시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본다. 인간은 동물을 자애로운 감정으로 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역시 동물에 대한 인간의 간접적 의무를 수행하고 인간적 감정의 발전을 위함으로 여긴다. 인간 자신의 인간성을 보존하고 훼손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동물이 이용되는 것이다.

강평

이해 분석력

C, d

㉓ : 모든 동물이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판사와 용모의 대화 내용을 보면, 두 등장인물은 모두 유용성이 있는, 인간에게 가치가 있는 동물은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㉔ : (나)에서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게 대해야 하는 근거로 제시한 것은 인간과 동물 사이에는 진화적 연속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고통과 감정을 느낀다'는 것만으로 동물에 대한 의무를 설명한 것이 아니다.

비교 및
종합화 능력

a, b, d

㉑ :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사문을 독해해야 하는데, 이 문장은 동물과 동물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 있다. 물론 (가)에서 인간은 유용성에 따라 동물을 구분하고는 있으나, 동물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었는가는 이 논제에서 중요한 비교 지점은 아니다.

㉒ : ㉑에서도 지적한 문제이지만, 제사문을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분석해야 한다. 동물 사이의 관계는 핵심 비교 사항이 아니다.

㉓ : 이 답안에서 2~4단락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5~7단락은 '동물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비교하고 있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 설정에 따라 인간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답안은 두 비교 기준 사이의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기준에 따른 단순 차이만을 강조하여 제시하였다. 이런 구성을 취하다 보니 (나) 제사문에 나타난 동물에 대한 태도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㉑와 같은 군더더기 문장이 필요했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동물에 대한 태도의 근거는 이미 4단락에서 모두 언급하였으므로, 반복 서술을 피하기 위해 ㉑의 불필요한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세 제사문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비교의 기준과 부각시켜야 하는 차이점, 제사문의 논지 등을 모두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글을 구성하는 데 실패한 것이다.

또한 이 답안의 경우 단락이 불필요하게 많다. '동물과 인간의 관계', '동물에 대한 태도'의 두 단락으로 나누는 것이 더 바람직한 구성이다.

표현력

문장 표현에서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답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글의 구성이다. 글을 유기적으로 구성하지 못했기에 군더더기 문장들이 생겼고 글 전체의 흐름이 매끄럽지 못하게 되었다. 이처럼 불필요한 문장들로 인해 글의 의도가 명료하게 표현되지 못한 것이 감점 요인이 되었다.

[답안 2]

① 답안 평가

| 평가 기준 | 답안 등급 |
|-------------|-------|
| 이해 분석력 | B |
| 비교 및 종합화 능력 | C |
| 표현력 | B |

② 답안

주어진 제시문은 모두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제시문 (가)에서는 인간의 권리를 동물의 권리보다 우선시한다. 이것은 ㉠ 동물에게 권리가 있다면 인간에게도 권리가 있고 동물이 인간보다 존엄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해 인간은 동물이 인간에게 이롭다면 보호하고, 인간에게 해롭다면 방치하여 사냥하여도 괜찮은 것으로 여긴다. 따라서 동물의 어떠한 행위는 오로지 인간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진다. 이러한 사고는 제시문의 ㉡ 판사에 의해 야생 동물은 그 자체의 가치만으로 보존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반박되어지고 있다.

제시문 (가)와 반대로 제시문 (나)에서는 진화론을 토대로 동물과 인간은 연속적으로 진화하였기 때문에 크게 달라 보이더라도 유전적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들어 인간은 동물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은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 지금까지 동물은 인간과 외적으로 유사성을 보일수록 우월하다고 여겨졌지만 그것은 실제로는 무의미한 것이다. ㉣ 이것은 비인도적 처우를 정당화하고 실제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하지만 실상 동물은 인간과 비슷한 개체로서 존재하며, 인간과 유사한 그들의 행동은 생존을 위한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물을 서열화하지 말고 그들을 개체로서 존중해야 한다.

제시문 (다)에서는 동물을 인간에 대한 수단으로서 인식한다. 동물은 자의식적이지는 않지만 그들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과 유사하다. ㉦ 동물은 그들의 행동이 인간과 유사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보상을 주는 의무를 행함으로써 우리가 인간에게 지는 의무를 간접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수단이다. 인간은 이러한 동물에게 인간적인 감정으로 대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동물을 대할 때 지는 의무가 인간에게 갖는 우리의 의무를 대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은 동물을 대할 때 자애로운 감정으로써 대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인간에게 갖는 의무를 행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이 ㉧ 인간적 감정을 발전시키기 때문이다.

강평

이해 분석력

b, c, d, e, f, g

⑤ : (가)의 입장을 핵심적으로 제시하는 사람은 용모이며 판사가 아니다. 즉, 판사의 말은 주된 분석 대상이 아니다.

③, ④ : (나)에서는 종들의 서열 관계에 관한 개념이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를 정당화하고 서로 다른 종들을 비교하는 데 사용되는 문제를 지적하였는데, ③과 ④는 이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였다.

③, ⑤ : ⑤에서 '하지만'이라고 연결되는 내용은 무엇에 대한 반대 관점인지 불분명하다. 구성상으로는 인간이 우월하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쓰인 것 같지만, 생존을 위한 동물의 행동이 인간과 유사하다는 것이 인간이 우월하다는 주장을 반대할 만한 확실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 ⑤는 오히려 ③과 함께 서술되거나 혹은 그 앞에 삽입되어야 하는 내용이다.

① :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인간에 대한 의무를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수단이라고 했지만, 인간에 대한 의무가 무엇인지가 서술되어 있지 않다.

④ : '인간적 감정의 발전'이 왜 필요한 것인지, '인간적 감정'이 무엇인지에 대한 서술이 없다. 이는 ①에서 나타난 오류와 같다.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인 존재이며, 따라서 인간에 대한 존중은 인간의 도덕적 의무이다. 인간의 존재가 갖는 특성에 대한 설명 없이 '의무'만을 강조하는 것은 (다)에 대한 독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에 따라 '인간적 감정'이라는 것이 인간 존재의 특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설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비교 및
종합화 능력

a

이 답안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와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비교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각각의 관점을 명확하게 대비시키지 않고 개별 제시문의 입장을 서술하는 것에 그쳤다. 특히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태도) 측면에서 (나)와 (다)가 갖는 유사점을 분석하지 못했다.

⑤ : (가)의 관점은 (나)의 관점과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다. (나)는 인간과 동물이 진화적 연속성을 가지므로 동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인간과 동물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대비시켜 보면 (가)가 인간과 동물을 서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인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가) 주장의 전제가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했어야 (나)와의 차이를 좀 더 선명하게 대비시킬 수 있었다.

표현력

'이것', '그것' 등으로 지칭하는 대명사를 남용하고 있다. 또한 복문이 많아 문장의 의도를 간결하고 명료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답안 3]

① 답안 평가

| 평가 기준 | 답안 등급 |
|-------------|-------|
| 이해 분석력 | A |
| 비교 및 종합화 능력 | A |
| 표현력 | A |

② 답안

㉓ 제시문 (가), (나), (다)는 인간과 동물 간의 관계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제시문 (가)와 (나)는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갖는다. 제시문 (가)는 등장인물 용모의 주장을 통해 인간과 동물의 우열 관계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용모는 인간을 기준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로움을 주는 동물은 해쳐도 좋고, 이롭거나 무해한 동물만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동물의 가치를 존재 자체에 둔다기보다 유용성에 기반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또한, ㉓ 인격과 물격을 구분하여 인격을 우위에 놓는 것으로 보아 인간과 동물을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고 인간의 우월성을 주장함을 알 수 있다.

㉔ 반면 제시문 (나)는 다윈의 자연 선택 이론에 입각하여 인간과 동물 간의 연속성을 인정한다. 때문에 인간을 비롯한 모든 종 사이에 서열을 정하여 차별하는 행위는 다른 종에게 고통을 주는 비인간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기적인 것으로 무의미하다고 비판한다. 서로 다른 종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다양한 환경 속에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해 터득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모든 종은 같다고 주장한다. 즉, 인간과 동물 모두 그 자체로서 가치 있고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는 것이다.

㉕ 제시문 (다)는 제시문 (가), (나) 두 입장의 성격을 모두 갖는 입장이다. (다)는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동물을 수단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제시문 (가)와 유사하다. ㉕ 동물은 스스로 사고하거나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 없으므로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내재적 가치를 지녔다고 볼 수 없다. 때문에 자주적인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 그러나 동물과 인간이 비슷한 특성을 공유한다는 주장에서 제시문 (나)와도 공통 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물은 본성상 인간과 유사한 존재이므로 인간과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인간의 편의대로 동물을 다뤄서는 안 되며,

㉖ 동물을 존중하고 보호할 때에만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있으므로 동물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평

이해 분석력

e, f

e, f : 이 답안은 각 제시문에 서술된 내용들을 활용하여 핵심 논지를 잘 정리하였다. 특히 e와 f의 경우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다)의 관점의 핵심을 잘 요약하였다.

비교 및
종합화 능력

a, b, c, d

a : 내용상 비교 기준은 인간과 동물의 관계뿐 아니라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태도)도 포함되어 있다. 한 가지 비교 기준만이 적용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함께 언급해 주는 것이 글의 전체적인 방향을 분명히 드러내 줄 수 있는데, 다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라는 표현은 이를 충분히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b, c : (가)에서는 인간과 동물을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고 있음을, 반면 (나)에서는 둘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 주면서 두 제시문의 차이를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d : (다) 제시문이 가진 속성을 나머지 두 제시문과 견주어서 보여 줌으로써 논지의 종합적 비교를 시도하였다.

표현력

문장과 표현에 무리가 없고 문제의 요구 사항을 잘 반영하여 서술한 글이다.

[답안 4]

① 답안 평가

| 평가 기준 | 답안 등급 |
|-------------|-------|
| 이해 분석력 | A |
| 비교 및 종합화 능력 | A |
| 표현력 | A |

② 답안

㉓ 제시문 (가), (나), (다)는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해서 서술한다. 이때 ㉓ 제시문 (나)는 나머지 제시문들과 달리 인간은 다른 종보다 우월하지 않으며 우월함을 지녀서도 안 된다고 피력한다. 제시문 (나)는 다윈의 자연 선택 이론을 근거로 우리와 다른 동물 사이에 진화적 연속성이 있다고 본다. 이 연속성에 따르면 우리는 다른 종들과 모든 방면에서 다를 바가 없으므로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매기는 종들 간의 서열은 무의미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종우월주의는 동물 학대와 살육을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사고일 뿐이다.

제시문 (가)에서 용모는 야생 동물을 죽여 범정에 끌려 온 것을 억울해한다. 범을 어겼다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이유가 인간에게 해로운 동물을 죽였기 때문임은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인간에게 가치가 없는 동물은 희생되어도 좋다는 것이며, ㉓ 물격보다 인격이 더 중요하다는 그의 주장은 동물에 대해서 인간은 절대적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종우월주의를 은연중에 드러낸 것이다.

㉔ 제시문 (다)는 동물들은 단지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써 존재할 따름이라며 제시문 (가)와 같이 인간의 우월함을 당연시한다. 다만 제시문 (다)에서 인류는 동물들에 대해 간접적이라 해도 일종의 의무를 지닌다. 동물과 인간의 본성은 유사성을 가지며 동일한 원리에서 나온다. 따라서 인간이 인류에 대한 존중과 도덕적 의무를 지나는 이상 우리는 동물들에게도 비슷한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㉕ (다)에서 강조하는 동물에 대한 인간의 의무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동물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제시문 (나)의 주장과 비슷하다 볼 수 있다. 하지만 제시문 (나)는 동등한 위치의 생명체로서 존중해 준다는 의미가 강하다. 반면 제시문 (다)는 자연로운 인간이 보여 줘야 할 모범적인 선행으로써의 존중일 뿐이다. 인간과 유사한 본성을 지닌 동물을 존중하는 것은 인간을 인간으로서 완성시키는 것이기에 동물에 대한 존중은 인간의 완성을 위한 행위로서의 의미만을 갖는다.

강평

이해 분석력

b, c, d

b, c, d : 각 제시문의 핵심 주장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제시문의 구체적인 지점들을 언급하여 서술하면서 제시문을 논리적으로 분석했다.

비교 및
종합화 능력

a, b, c, e

a : 문제에서 제시된 핵심어 이외에 어떤 비교 기준을 설정한 것인지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만 초점을 두어 제시문을 분석하다 보니, 1~3단락은 제시문의 논지를 정리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제시문의 핵심 내용과 차이점은 잘 보여 주고 있으나, 단순한 비교 기준 설정과 글의 구성이 논리적으로 전개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b, c : (나) 제시문에서 언급된 종우월주의의 설명을 바탕으로 (가)의 주장을 분석함으로써 (가)와 (나)의 대비점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e : (다) 제시문과 (나) 제시문의 유사점 및 차이점이 어떤 점에서 드러나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표현력

전반적인 표현에 문제가 없으며, 개념어의 활용이나 문장 간 연결 등에 무리가 없는 글이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세 제시문의 논지를 비교·분석하라는 문제이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기본적인 비교의 기준이 되겠지만, 각 제시문의 중심 논지를 상세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내용 이해를 통해 비교 기준을 상세화할 필요가 있다.

이 논제의 경우 비교 기준에 따라 제시문 간의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의 관계’라는 포괄적 키워드에만 초점을 맞추어 제시문의 논지를 분석하게 되면 각 제시문에 나타난 입장 차이, 즉 동물과 인간의 구분과 지위·권리에 대한 입장 차이를 비교하여 분석하지 못하고 내용을 추상적으로 서술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다. 제시문의 난도가 높지 않음에도 이해 분석력에서의 점수 차이가 큰 것 역시 이 때문이다. ‘인간과 동물의 관계’라는 비교 조건이 중요하지만, 이것에만 집중하여 제시문의 논리적인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표면적인 논지만을 끌어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주장만을 찾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어진 비교 기준과 제시문 전체를 포괄하는 주제 등을 고려하면서도 각 제시문에 담긴 세부적 사항들까지 놓치지 않고 파악해야 한다. 제시문의 난도가 낮을수록 세심하게 독해하는 것이 당락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불합격 답안들은 제시문을 상세하게 독해하지 못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단순한 독해 오류는 아니고,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설정하는 다양한 특성들에 대한 고려 없이 표면적인 논지만을 분석한 것이다. 그래서 비교의 내용이 단순하고 제시문의 세부적 차이들을 제시하지 못했다. [답안 1]은 각 제시문에서 인간과 동물을 각각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제시문의 관점의 차이를 구체화시키지 못했다. 비교 기준 설정은 타당했으나,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논제의 기본 쟁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했다고 보기 어렵다. [답안 2]는 제시문을 자기 언어로 소화하지 못한 점이 눈에 띈다. [답안 1]에 비해서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보이지만, 제시문 (나)와 (다)에 나타난 개념어의 의미 분석 없이 이를 조합하여 문장으로 구성한 듯한 표현들 때문에 글의 의도를 제대로 표현해 내지 못했다.

합격 답안들은 이와 반대로 제시문의 심층적인 의미를 파악하여 제시문에 나타난 입장들의 차이를 뚜렷하게 제시하였다. [답안 3]은 각 제시문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의 차이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세 관점을 비교하였다. 제시문의 표면에 드러난 주장뿐만 아니라 그 주장의 숨겨진 전체를 파악하여 제시문의 의미를 읽어 내었고, 그에 따라 각 제시문에 담긴 주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비교 역시 가능했던 것이다. [답안 4]는 [답안 3]에 비해 비교 기준을 명료하게 제시하지 못했고, 각 단락의 역할도 확실하게 정리하지 못해 구성상 약점이 있는 글이다. 그러나 세 제시문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단락을 배치하였고, 내용상의 논리적 연결에는 무리가 없었기에 세 관점의 차이를 충분히 보여 줄 수 있었다.

학생의 실제 합불 답안과
대학의 평가를 공개합니다!

이투스^{이투스}북

단기완성

2016 대입논술
실전대비서

논술

20

대학 가자

초암 PlanA 논술팀

인문
논술

실제
학생 답안
완벽 분석

대학별
최신 기술
문제 수록

주요 대학 기술문제 분석과
학생들의 실제 합불 답안 수록!

논리적 추론력, 사고력 훈련을 위한 논술 실전서
유형과 논제에 대한 최근 2개년 예제 수록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다양한 풀이법 제시

수시/모의논술, 논술경시 대비를 위한 합불 답안 제시
20년 경력의 논술 강사들이 첨삭한 실제 답안 공개
논술 시험 전 꼭 한 번 보고 가야 할 책

특별 제공 자료

2012년, 2013년 기술문제 답안 작성 방향 및 합불 답안 분석 자료
(이투스북 www.etoosbook.com 학습자료 다운로드 코너에서 제공됩니다)

논술

대학가자

학생들의 실제 [합격 답안 vs. 불합격 답안]을 통해 '합격 요소'를 배운다!

학생들이 작성한 실제 답안을 수록하고 그 답안의 합격 요소와 불합격 요소를 실제 대학의 평가 기준을 반영하여 분석하였습니다. 합격 요소를 별도로 체크하여 실제 답안 작성에 적용하고, 불합격 요소는 잘 숙지하여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학별 기출문제로 출제 경향을 파악한다!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최근 2개년 인문논술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경우 인문수리논술도 함께 수록하여 한 권으로 논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단계 해설로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1단계: 문제 해결의 원칙] → [2단계: 답안 작성 방향] → [3단계: 답안에서 자주 나오는 오류]로 자세한 기출문제 해설을 제공하여 실전 답안 작성에 대한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실전 모의고사로 실제 시험에 대비한다!

연세대와 고려대 출제 경향에 맞춘 논술 실전 모의고사와 해설을 수록하였습니다. 출제 가능성이 높은 예상 문제를 통해 실전 대응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Easy to Study

공부가 쉬워지는 곳,
신재철의 학습 노하우가 있는 곳
www.etoosbook.com



정가 25,000원



9 791158 312091

ISBN 979-11-5831-209-1